

## SNS 중독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sup>†</sup>

조 성 현      서 경 현<sup>‡</sup>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과 SNS 중독 경향성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녀 대학생 302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만 17세에서 41세 사이였다. SNS 중독경향성의 구성요인은 집착 및 금단증상, 과잉소통과 몰입 그리고 과도한 시간투자였다.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는데, 특히 과민 취약성, 소심함과 자신감 부족 뿐 아니라 착취 및 자기중심성이 관계가 있었다. 중다회귀분석 모형에서 다른 내현적 자기애 요인들로 보정되었을 때는 인정욕구와 거대자기 환상이 SNS 중독경향성과 부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감도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상관분석에서는 소외감 하위요인 모두 SNS 중독경향성과 상관이 있었지만, 네 가지 하위요인을 투입한 중다회귀분석 모형에서는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설명력이 15.8% 이었으며, 무력감과 규범 상실감만이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한편 자기제시 동기는 SNS 중독경향성과 상관이 없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를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SNS, 중독, 자기애, 자기제시, 소외감

<sup>†</sup> 이 논문은 조성현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인터넷은 사람들이 거리의 장벽을 넘어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처음에는 인터넷 상에서 e메일을 통한 교류가 전부였지만 요즘은 SNS를 통한 교류도 활발하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란 사람들 간에 사회망을 구축하고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흥밋거리나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도록 특화된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다(Kelsey, 2010). 한 조사(매킨지, 2011: 오윤경, 2012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2011년에 들어 전 세계적으로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15억 명 이상이나 되고, 한국인 중에도 SNS 이용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하루 평균 52분 정도 SNS를 사용하고 이들 중 10.1%가 자신이 SNS를 과다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7.3%가 SNS 과다 사용 때문에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중독장애(Facebook Addiction Disorder: FAD)’ 혹은 ‘페이스북/트위터 중독장애(Facebook/Twitter Addiction Disorder: FTAD)’란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이다(Young, 2011: 오윤경, 2012에서 재인용).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외에도 카카오톡이 대중화되어 수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ZDNet, 2012년 3월 12일자). 카카오톡은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되는 SNS로 일반 인터넷이 아닌 흔히 ‘앱’으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진다. 애플리케이션은 독립된 자바 실행 프로그램의 형태이기 때문에 더 집중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 김보연과 서경현(2012)의 연구에서도 SNS와 앱을 과도하게 사용

하는 것이 폰 중독의 한 가지 요인이었다. Young(2000)은 인터넷 중독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컴퓨터 게임중독, 웹서핑 중독, 인터넷 도박이나 온라인 쇼핑 중독, 사이버섹스 중독 그리고 사이버관계 중독을 들었는데, SNS 중독은 목적과 동기 차원에서 사이버관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SNS의 사용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오래 되지 않았기 SNS 과다 사용이나 중독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 SNS의 사용의 부작용을 연구한 것은 오윤경(2012)의 연구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SNS 중독경향성이 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하고 외로움을 더 경험하며 대인관계에서 만족감이 적었다. SNS의 과다 사용이나 중독이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한다면 SNS 중독경향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 성향은 무엇일까?

Kuss와 Griffiths(2011)는 자기중심성이 인터넷 중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SNS 중독과도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데서 쾌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SNS 사용에 더 매력적으로 끌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기중심성과 가장 관련된 성격이 자기애성이다.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들(Buffardi & Campbell, 2008; Manago, Graham, Greenfield, & Salimkhan, 2008; Mehdizadeh, 2010)에서는 자기애성 성격이 SNS 사용이나 중독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다. 자기애성 성격자의 자기개념이나 자신에 대한 느낌에 불균형 상태가 SNS 과다 사용이나 중독에 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자기애와 SNS 중독 간의 관계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탐색하

고자 한다.

자기애는 크게 외현적 자기애(overt narcissism)와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로 구분된다(Kohut, 1977). 외현적 자기애는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으로 여기는 과장된 자기지각과 자신의 웅대성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주요 특성이다.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인 자기애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면 깊숙이 자기애의 역동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권석만, 한수정, 2002).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도 신경증적 경향성, 우울, 적대감 등과 같은 병리적 특성과 상관이 있었는데,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실제 사회 환경에서 자기의 웅대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에 인터넷 상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고 본 연구자는 가정하였다. 실제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인터넷 과다 사용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보상경험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이계정, 정남운,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자기애 중에 내현적 자기애를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Livingstone(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SNS를 자기표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SNS가 자기를 표현하기 편리한 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uss와 Griffiths(2011)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의 장점을 부각시켜 드러내고 그것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을 좋아해 SNS를 과다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자기제시 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SNS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인 외향성이나 개방성이 SNS 과다 사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orrea, Hinsley, & de Zuniga, 2010; Ross et al., 2009)도 이런 논리를 지지한다.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도 SNS 상에 글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의 글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다(Amichai-Hamburger & Vinitzky, 2010). 그렇다면 내외향성이 아닌 자기제시 동기 자체를 변인으로 SNS 중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 혹은 정서적 불안정성도 SNS 과다 사용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michai-Hamburger & Vinitzky, 2010),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양방향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 어떤 연구(Ross et al., 2009)에서는 신경증 경향성이 적은 사람이 SNS 상에 사진을 올리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과 SNS 사용의 관계가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Correa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적 경향성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관계가 있는 소외감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한 연구(Orr, Ross, Simmering, Arseneault, & Orr, 2009)에서는 부끄럼을 잘 타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았고 SNS 상에 친구도 많았다. 이계정과 정남운(2007)의 연구에서도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은 인터넷 과다 사용과 관계가 있었다.

한국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SNS 과다 사용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이나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는

물론 그에 따른 부가적 문제들을 다른 연구들이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그런 연구 결과를 문화가 다른 한국에 바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SNS를 사용하는 이유조차도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Kim, Sohn, & Choi, 2011)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은 사회적 지원을 위해 SNS를 사용하는 측면이 강했고, 미국 대학생들은 레저나 오락을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NS 과다사용이나 중독경향성과 개인 내 특성 중에 내현적 자기에,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려고 한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이 SNS 중독경향성과 관계가 있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에,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이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면,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그런 개인 내 특성의 설명력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연구문제를 검증하고 SNS 중독경향성의 구성개념과 관련된 개인 내 특성을 탐색함으로써 추후 연구와 SNS와 관련된 정책적 법안 수립 그리고 SNS의 부작용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 방 법

###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한 사립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302명(남학생 116명, 여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연령은 만 17세에서 41세( $M=21.15$ ,  $SD=3.38$ )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 중에 형제자매가 없는 학생이 35명(11.6%)이었다. 참여자 중에 143명이 개신교(기독교)인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20명(6.6%), 불교 18명(6.0%), 기타 종교 12명(4.0%) 순이었으며, 108명(53.9%)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SNS를 사용해 온 기간은 1개월 미만인 14명(14%), 6개월 미만은 48명(15.9%),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62명(20.5%),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87명(28.8%), 그리고 2년 이상이 91명(30.1%)이었다. 참여자들이 하루 SNS를 사용하는 시간은 30분미만이 72명(23.8%), 1시간 정도가 105명(23.8%), 2시간 정도는 39명(12.0%), 3시간 정도가 22명(7.3%)이었으며,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62명(20.5%)이나 되었다. SNS로 소통하는 친구의 수는 10명 이하가 2.6%(8명), 20명 이하는 4.3%(13명), 30명 이하는 2.6%(8명), 50명 이하는 6.0%(18명), 100명 이하는 22.2%(67명), 그리고 100명 이상이 62.1%(187명)이었다.

참여자들이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렸으며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다. 참여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으며, 참여자들이 설문 과정에서 소비한 시간은 약 25분이었다. 본 연구를 위한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0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적률상관분석과 동시투입 중다회귀분석이었다.

### 조사 도구

**SNS 중독경향성.** SNS 과다사용이나 중독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도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 오윤경(2012)이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고, 본 연구자들은 SNS 일반사용자와 과다 사용자 10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하고 중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오윤경의 질문지에 포함된 11문항에 9문항을 추가하여 SNS 중독경향성을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의 요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축요인 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에 의해서 요인의 개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고유가(eigen value)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과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으로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수는 3개로 나타났으며(eigen values=9.52, 1.40, 1.02), 이 세 요인이 전체 변량의 59.7%가량을 설명해 주었다. 요인 1(10 문항)은 SNS 집착 및 금단증상을, 요인 2(7문항)는 SNS 과잉소통과 몰입을, 그리고 요인 3(8문항)은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를 묘사하고 있었다.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SNS에 대한 중독성향이 강한 것이다.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SNS 집착 및 금단증상은 .91, SNS 과잉소통과 몰입은 .86, SNS에 과도한 시간투자는 .78, 그리고 전체 문항은 .94이다.

**내현적 자기에.** 연구 참여자의 내현적 자기에 는 Akhtar와 Thomson(1982)의 척도를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 척도(CNS: Covert Narcissism Scale)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 불안정(9문항),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9문항),

착취 및 자기중심성(9문항), 과민 및 취약성(10문항), 소심 및 자신감 부족(8문항)과 같은 5개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강선희와 정남운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목표 불안정이 .87,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이 .79, 착취 및 자기중심성은 .78, 과민 및 취약성이 .78, 소심 및 자신감 부족은 .80, 그리고 전체 문항은 .91이었다.

**자기제시 동기.** 대학생이 자기를 남에게 보이 고자 하는 자기제시 동기는 Leary와 Kowalski (1995)의 자기제시 이론에 근거하여 김남재(1998)가 개발한 자기제시 동기 척도(SPMS: Self Presentational Motivat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27문항을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소외감.** 대학생이 경험하는 소외감은 Mau (1992)가 개발한 학생 소외감 척도(SAS: Student Alienation Scale)를 이은숙(2002)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무력감(8문항), 무의미감(6문항), 규범 상실감(7문항), 사회적 고립 감(7문항)과 같은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총 28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은

무력감 .86, 무의미감 .77, 규범 상실감 .84,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은 .85였다.

## 결 과

###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이 SNS 중독경향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는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3$ ,  $p<.001$ .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 중에 인정욕구나 거대자기 환상은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고, 그 외 하위요인은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착취 및 자기중심 성향과 과민 취약성 그리고 소심 및 자신감 부족은 모든 SNS 중독경향성 하위요인, 즉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그리고 SNS에 과도한 시간투자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목표 불안정과 SNS 과잉소통 및 몰입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자기제시 동기와 SNS 중독경향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r=.06$ ,  $n.s.$  그런데 소외감은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9$ ,  $p<.001$ . 소외감의 모든 하위요인, 즉 사회적 고립감, 무력감, 규범 상실감 및 무의미감이 SNS 중독 경향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의 설명력

상관분석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소외감이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SNS 중독경향성을 준거변수로 하고 각각 내현적 자기애 하위변인들과 소외감 하위변인을 예언변인으로

표 1. SNS 중독경향성과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의 상관행렬( $N=302$ )

변인	SNS 집착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 몰입	SNS 과도한 시간투자	SNS 중독 경향성
목표 불안정	.14*	.09	.14*	.13*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02	.01	.02	-.01
착취/자기중심	.36***	.20***	.25***	.31***
과민 취약성	.21**	.18**	.14*	.21***
소심 및 자신감 부족	.18**	.14*	.21***	.19***
내현적 자기애	.24***	.17**	.21***	.23***
자기제시 동기	.01	.10	.10	.06
사회적 고립감	.40***	.18**	.26***	.32***
무력감	.45***	.24***	.28***	.38***
규범 상실감	.40***	.21***	.25***	.34***
무의미감	.29***	.23***	.27***	.29***
소외감	.45***	.25***	.31***	.39***
<i>M(SD)</i>	17.73(5.95)	15.15(4.50)	6.14(2.14)	39.01(11.49)

\*  $p<.05$ , \*\*  $p<.01$ , \*\*\*  $p<.001$ .

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하나의 표에 제시하였다(표 2).

먼저 내현적 자기에 하위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분석에서는 내현적 자기가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13.5%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9.20$ ,  $p<.001$ .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섯 가지 내현적 자기에를 동시에 투입한 회귀모형에서는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beta=-.20$ ,  $p<.001$ )와 착취 및 자기중심성( $\beta=.31$ ,  $p<.001$ )이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이었다.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은 상관분석에서는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는데, 내현적 자기에 다른 하위요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SNS 중독경향성과 부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소외감 하위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분석에서는 소외감이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15.8%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99$ ,  $p<.001$ . 네 가지 소외감 하위요인을 동시에 투입

한 회귀모형에서는 무력감( $\beta=-.20$ ,  $p<.001$ )과 규범 상실감( $\beta=.31$ ,  $p<.001$ )이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의 구성개념을 분석하고, 내현적 자기에, 자기제시 동기 및 소외감과 같은 개인 내 특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먼저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은 SNS에 대한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그리고 SNS를 위한 과도한 시간투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집착이나 금단증상이 구성개념에 포함된 것은 SNS에 중독될 수 있음을 확실히 알려준다. 또한 SNS으로 타인과 교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다른 사용자와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SNS의 본연의 특성(Boyd & Ellison, 2007)이 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NS에 과하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SNS 중독경향성에

표 2.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와 소외감의 중다회귀분석 결과(N=302)

예언변인		B	$\beta$	t	R <sup>2</sup>	F
내현적 자기에	상수	26.01		6.31***	.135	9.20***
	목표 불안정	-.08	-.04	-.64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43	-.20	-3.09**		
	착취/자기중심	.68	.31	4.91***		
	과민 취약성	.23	.12	1.56		
	소심 및 자신감 부족	.25	.11	1.51		
소외감	상수	20.60		7.16***	.158	13.99***
	사회적 고립감	.01	.01	.03		
	무력감	.58	.24	2.56*		
	규범 상실감	.43	.15	1.99*		
	무의미감	.23	.07	.87		

\*  $p<.05$ , \*\*  $p<.01$ , \*\*\*  $p<.001$ .

과다 사용이 포함됨을 시사한다.

내현적 자기에는 SNS 과다 사용을 포함하여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가 인터넷 과다 사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계정, 정남운, 2007)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현적 자기에 요인 중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거대자기 환상은 SNS 중독경향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학생이 자기에의 대표적 특성인 자기 웅대성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에 요인 중에 과민 취약성이나 소심함 혹은 자신감 부족 같은 신경증적 경향성 관련 변인들도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신경증적 경향성이 SNS 과다 사용과 정적 상관을 보인 Amichai-Hamburger와 Vinitzky(201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그리고 착취 및 자기중심성과 함께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는 이 두 변인이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과 SNS 중독경향성이 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Ross et al., 2009)와 두 변인 사이에 조절변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Correa et al., 2010)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두 변인 간의 관계가 복잡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경증적 경향성과 SNS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를 추후 다각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내현적 자기에 요인 중에 타인에 대한 착취나 자기중심성이 SNS 중독경향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두 변인은 약 10%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자기중심성이 인터넷 중독과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Kuss와 Griffiths(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인터넷 공간, 특히 SNS 공간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SNS 공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주도하여 글을 올리고 답 글을 달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성에 타인에 대한 착취까지 포함된 요인이 SNS 중독경향성과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욕구를 SNS가 충족해 주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른 내현적 자기에 요인과 함께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는 인정욕구와 거대자기 환상이 SNS 중독경향성에 대한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고, 게다가 부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관분석에서 인정욕구와 거대자기 환상이 SNS 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지만, 이 요인이 다른 내현적 자기에 요인들로 보정되면 SNS 중독경향성이 낮아지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가정 하에는 다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없는 가운데 인정욕구와 거대자기 환상이 강하면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중공성선의 문제로 인한 변수 간 상호작용이나 다른 네 가지 내현적 자기에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 추후 연구에서 이 관계를 다시 입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인정욕구와 거대자기 환상만 강한 사람은 오히려 SNS 중독경향성이 낮게 나타난 것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를 제시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 SNS에 중독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가정하였지만, 자기제시 동기는 SNS 중독경향성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약점을 상쇄시킬 정도의 장점을 부각시켜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Griffiths, 2011)을 충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선행연구(Correa et al., 2010; Ross et al., 2009)에서 외향성이나 개방성이 SNS 과다 사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자기제시 동기가 아닌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개방적 성격이나 사교적인 것인 것을 지향하는 성격과 함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의 하위요인, 즉 사회적 고립감, 무력감, 규범 상실감 및 무의미감이 SNS 중독경향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었다. 소외감은 SNS 중독경향성의 변량을 15% 이상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감 하위요인들을 감안할 때 단순히 사회적 고립감만이 아니라 무력감이나 인생의 무의미감을 SNS 상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규범 상실감이 SNS 중독경향성과 상관이 있었던 것은 사회규범의 회복을 SNS 상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으며 SNS 상에서 새로운 규범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는 결론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네 가지 하위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무력감과 규범상실감이 특별히 유의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주목하여 연구하였으면 한다.

이 연구가 탐색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것도 임의적으로 추론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대략적인 지침을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SNS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외에도 시기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도 존재한다. 그런 일반화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대와 20대가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0)이 앞으로 SNS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에 따른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추후연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969-990.
- 권석만, 한수정 (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남재 (1998).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제시 기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보연, 서경현 (2012). 고등학생의 폰 중독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 스트레스 반응: 수면부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 385-398.
- 오윤경 (2012). SNS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정, 정남운 (2007). 내현적 자기애 성격성향과 인터넷 보상경험이 인터넷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55-69.

- 이은숙 (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이용자의 SNS 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V*.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ichai-Hamburger, Y., & Vinitzky, G. (2010). Social network use and personalit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1289-1295.
- Boyd, D. M.,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Buffardi, E. L., &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 1303-1314.
- Correa, T., Hinsley, A. W., & de Zuniga, H. G. (2010). Who interacts on the Web?: The intersection of users' personality and social media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 247-253.
- Kelsey, T. (2010). *Social Networking Spaces: From Facebook to Twitter and Everything In Between*. New York: Springer-Verlag.
- Kim, Y., Sohn, D., & Choi, S. M. (2011). Cultural difference in motivations for using social network sites: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 365-372.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3528-3552.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34-47.
- Livingstone, S. (2008).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creation: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New Media & Society*, 10, 393-411.
- Manago, A. M., Graham, M. B., Greenfield, P. M., & Salimkhan, G. (2008). Self-presentation and gender on MySpa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6-458.
- Mau, R. Y. (1992). *The validity and devolution a concept: student aliena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3, 357-364.
- Orr, E. S., Ross, C., Simmering, M. G., Arseneault, J. M., & Orr, R. R. (2009). The influence of shyness on the use of Facebook in an undergraduate sample. *CyberPsychology & Behavior*, 12, 337-340.
- Ross, C., Orr, E. S., Siscic, M., Arseneault, J. M., Simmering, M. G., & Orr, R. R. (2009).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with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578-586.

Young, K. (2000).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The International Medical Journal for Students*, 7, 351-352.

ZDNet (2012. 3. 12.) 카카오톡, 가입자 4천만 넘었다.  
<http://www.zdnet.co.kr/>

원고접수일: 2013년 1월 23일

게재결정일: 2013년 2월 18일

#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Related with SNS Addiction Proneness: Focus on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Sung-Hyeon Cho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covert narcissism,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and sense of alienation are related to SNS addiction proneness. The participants were 302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hose ages ranged from 17 to 41. SNS addiction proneness is structured as attachment/withdrawal symptom, excessive communication/absorption, and excessive time consumption. Correlational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covert narcissism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SNS addiction proneness, especially vulnerability of hypersensitivity and timidity/lack of confidence, as well as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were correlated to.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desire for self-acknowledgement or fantasy of self-grandeur was negatively related to SNS addiction proneness as being adjusted by other factors of covert narcissism. Feeling of sense of alienation was also positively correlated to SNS addiction proneness. Whereas, each four factors were independently significantly related to SNS addiction proneness, only helplessness and sense of loss in norm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with four sub-factors of sense of alienation. In addition, their accountability was about 15.8%. Besides,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to SNS addiction proneness.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suggested the discussion and information for further studies.

*Keywords:* SNS, addiction, narcissism, self presentation, alienation